

“지자체 예산 10% 절감” 광주시·전남도 현안 사업 차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내세워 예산절감을 유도키로 방침을 정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사업 등의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서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지방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예산의 10%인 2천583억원, 4천233억원을 각각 절감해야 한다.

행안부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각 지역 지방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전통·재래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절감 목표가 제시될 경우 소방도로 개설과 농로 및 도로 확장, 도로 개보수,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 등 필수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령경비로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어 신규 사업 축소나, 지연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물의 날’ 광주천 걷기

‘물의 날’(22일)을 맞아 앞둔 가운데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물 한방울 흠 한줌’ 행사가 16일 오후 광주천 일대에서 열렸다. 물의 소중함과 하천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광주시 북구 용산교~남광교~광산대교까지 행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공천 진통 부작용 속출

전략공천 논란 속 일정 차질 ... 탈락후보 반발 확산

총선 D-23

호남발 공천쇄신 작업이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양산해내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경선이 이어 전략공천 논란으로 여론조사 경선일정이 늦춰지거나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지역구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공천 후보 확정을 위한 마지막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2배수 압축 후보군에서 탈락한 후보들 대다수가 ‘조사 결과와 심사기준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 등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천위의 공천과정 전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는 한 때 여론조사 경선일정이 지연되면서 말썽을

빚었다. 박상천 민주당 공동대표가 이곳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고집한 때문이다. 16일 오전 경선대상 후보들의 합의로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됐지만, 16일까지는 끝마치기로 했던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의 원의 지역구 무안·신안은 김 의원의 공천 탈락과 함께 전략공천지로 내정

되면서 아예 후보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통합민주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곳을 전략공천지로 선정한 이유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천 과정에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를 1차 후보자 압축에서 탈락했다가 현역인 정동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자 다시 4배수 압축후보에 포함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준비를 못 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탈락할 현역의원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2차에 가서야 탈락시킨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또 다른 5~6명의 후보들도 여론조사 과정의 불공정과 납득할 수 없는 기준 등을 이유로 중앙당과 공천위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유권자에게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거물들의 격돌’이 벌어지는 수도권 총선, 영남의 각 선거구 소식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이와 함께 민주당이 선택한 최종

社告

유권자의 힘!

4·9 총선은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일보는 23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이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선거혁명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다양한 총선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광주일보는 특히 이번 총선이 건전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광주일보·KBC광주방송 공동 여론조사 실시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가운데 격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조사기관인 한백리서치가 실시하는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에게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광주일보·KBC광주방송 공동 후보토론회 개최

광주일보는 KBC광주방송과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비전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후보의 도덕성, 전문성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동토론회는 광주일보 지면에 게재되며, KBC광주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및 녹화중계됩니다.

■ 다양한 선거 기획보도

광주·전남지역 관심 선거구와 격전지를 분류해 관세와 민심향배를 심층분석하는 다양한 기획보도를 발굴, 수시로 게재합니다. ‘총선 이슈 점검’과 ‘말·말·말’ ‘총선 격전지 순례’ ‘총선 현장’ 등의 코너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전국 총선 판세 한눈에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판세분석을 곁들여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거물들의 격돌’이 벌어지는 수도권 총선, 영남의 각 선거구 소식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 정책으로 승부하는 매니페스토 선거 유도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유권자에게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거물들의 격돌’이 벌어지는 수도권 총선, 영남의 각 선거구 소식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光州日報社

여론조사 경선방식이 4년간의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현역과 신진의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치신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망학원 장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0분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역력 및 경력

- 광주 북구(가정) 법원
- 서울대법원(가정) 법원
- 제2회 지방시험/관공 14기
- 충청(충주)지방법원 검사
- 광주고법법률고사
- 법무사(1) 3306년 3월 7일 발령
- 개업연: 2008년 9월 16일(제) 오전 11시 30분부터

변호사 **김규장** 출현

● 개업장소: 광주 서구 동명로 302 (지선동 709-15) 경향빌딩 2층 (광주시법원) ● 대표전화: (062)225-8383/8484 ● FAX: (062)225-8384

트렌디는...
 피부의 아름다움은...
 피부의 아름다움은...
 피부의 아름다움은...